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박바울 목사님 그리고 JSB Mission Fund Team께

그동안 주안에서 평안 하셨는지요?

저는 현재 자메이카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남미 농아 선교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 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월 18일에 자메이카 수도인 킹스턴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메이카도 치안이 좋지 않고 농아인들의 경제상황이나 신앙생활 상황이 예상보다 더 좋지 않아 낙심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잘 체류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자메이카 농아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얻는 은혜가 매우 커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메이카에는 농아 교회가 몇 군데 있지만 통역을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알려진 농아인 목사는 1명 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농아인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자메이카의 무더운 날씨 탓인지 농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사모하지 않고 더위에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메이카 농아인들의 생활은 대부분 어려움이 많고 일을 해도 차별로 인해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해서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자메이카에 와서 매주 주일 낮에는 킹스턴에 있는 일반교회에서 농아인들에게 설교하고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시외에 있는 포트모어 농아인 집에서 농아인들에게 창세기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킹스턴 농아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킹스턴의 또 다른 일반교회에서 농아인들에게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지난 9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킹스톤 회관에서 수화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모인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0월 11일-13일에는 오쇼 리이스에서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0월 22일에는 탐 힐에 있는 일반 교회 행사에 참석하여 모인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0월 28일에도 탐 힐에 있는 농아인 성도 집에 농아인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쳤고 29일 주일 예배도 탐 힐에 있는 농아교회에서 설교하였습니다. 탐 힐에 있는 농아교회에는 교회는 있지만 목사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메이카 선교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는 농아인 카톡 단체 채팅방에 설교 동영상을 공유하여 보내고 있고 다른 지역 남미 농아인들과는 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6일까지 자메이카에 체류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자메이카 체류기간동안 안전하게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자메이카에 농아 교역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2. 자메이카 농아인들의 신앙이 속히 회복되도록
3. 자메이카에서 안전하고 몸 건강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킹스톤 일반 교회(농아부)/매주 주일낮예배



포트 모어 농아인들의모임/매주 일요일 오후 5시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킹스턴 농아 학교/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다른 일반교회 농아인들/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수화 세미나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탑 힐 농아 행사/ 교회 10월 22일/ 28일



탑 힐 농아 교회/주일낮예배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기타

